



■ F1 관전 포인트는

예선 1위 '폴 포지션' 결승 가장 앞에서 출발

귀마개·쌍안경 필수... DMB 중계 재미 2배

# 빨간 카메라 부착된 레드불 머신, 우승예약 페텔이 몬다

포뮬러 원(F1) 코리아 그랑프리 14일 연습주행을 시작으로 16일 결승까지 3일간의 뜨거운 질주를 벌인다. 영암 서킷을 찾는 팬들이 현장에서 좀 더 재밌게 F1을 즐길 수 있는 관전법 3가지를 소개한다.

◇ 팀과 선수 구분은 어떻게 하나=현장에서 시속 300km 이상의 무서운 속도로 지나가는 머신(F1 경주차)을 알아 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약간만 신경을 쓰면 머신과 드라이버들을 알아볼 수 있다.

2년 연속 월드 챔피언 제바스티앙 페텔의 레드불은 푸른 색이 바탕이며 팀명처럼 붉은 황소가 그려져 있다. 레드불과 레드불의 형제팀 토로로소는 레드불과 거의 같지만 앞부분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2008 챔피언 루이스 해밀턴과 2009 챔피언 젠슨 버튼이 있는 맥라렌은 은색 기반에 붉은 색이 가미됐다. 페타리는 전통적으로 붉은 색을 쓰고 미하엘 슈마허가 소속된 메르세데스GP는 은색과 녹색이 상징이다.

드라이버 구분은 차량 뒤쪽에 있는 카메라 박스 색깔로 가능하다. 팀의 에이스인 퍼스트 드라이버는 빨간색, 세컨드 드라이버는 노란색이다. 카메라 박스가 붉은색인 레드불 머신이 지나갔다면, 그가 바로 페텔이다.

◇ 예선과 결승의 차이는=15일 열리는 예선의 공식 명칭은 퀄리파잉(Qualifying)이다. F1의 예선은 다른 종목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 예선 순위대로 출발 순서가 정해지는데 추월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킷을 여러 바퀴 돌아 그중 가장 빠른 기록이 자신의 성적이 된다. Q1-Q2-Q3로 세 차례 단계를 거치는데 Q1에서 하위 7명, Q2에서



다시 7명을 추린 뒤 Q3까지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린다. 예선 1위를 폴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결승에서 가장 앞에서 출발하게 된다. 16일 열리는 결승은 약 300km를 도는 장거리이다. 코리아 그랑프리는 5.615km의 서킷을 55바퀴(305.2km) 돈다.

◇ 관전 준비물=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귀마개다. F1

머신의 엔진소리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2시간 가까이 듣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다. 드라이버와 팀들의 정보가 담긴 정보책자도 미리 챙겨두면 좋다. 12팀 24명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레이스를 보면 더욱 흥미롭다.

올해부터는 DMB 중계방송을 하기로 해 DMB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나 PMP, TV 수신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등

의 기기만 있으면 경주장 어디에서든 한국어 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DMB 중계는 MY MBC를 통해 방송되며 고품질HD 방송으로 송출돼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

또 일단 레이스가 시작되면 별다른 일이 없는 이상 휴식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음료 역시 필수적이다. 쌍안경도 준비해두면 좋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F1 TV 중계 100% 즐기기

## 드라이버 눈으로 보는 레이스 현장에 있는 것보다 더 생생

F1 경주장(서킷)에 가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심장을 쿵쿵거리게 하는 굉음과 타이어 타는 냄새의 현장감은 느낄 수 없지만 TV 앞에 앉았다면 서킷의 다양한 코너별 특징을 현장에서 보는 것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올해 코리아 그랑프리는 MBC가 생중계를 한다. 중계 화면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있다. 또 머신에 온보드 카메라를 달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시점에서 레이싱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중계방송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모기소리 같은 앵앵거리는 사운드만 들리고 비숫비숫하게 생긴 머신들이 비숫비숫한 장소를 반복해서 달려가는 것 같아 도무지 누가 1위이고 몇바퀴를 돌았는지 알기 힘들다.

F1 중계를 재미있게 보려면 TV에 수시로 뜨는 자막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화면이 현재 순위와 드라이버 이름, 기록이다.

실제 화면으로 보자. 머신들이 스타트 라인에 섰을때 나타내는 스타팅 그리드 안내화면은 결승전 경기 시작 초반에 뜨는 대표 화면이다. 출발 그리드(선상)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위치와 함께 드라이버 이름과 극적, 팀명, 예선 최고 기록 등이 표시된다.

다음 화면은 12라운드인 헝가리 그랑프리 결승전 스타팅 그리드 안내화면으로 페텔이 예선에서 랩타임(서킷 한 바퀴 주행시간) 1분48초298로 1위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페텔이 제일 앞 그리드에 출발하는 '폴포지션'을 차지하게 됐다는 의미다.

주행때는 화면 상단에 현재 몇바퀴를 돌았는지 보여주는 자막이 뜬다. 'Lap 3/55'자막이 떴다면 전체 55바퀴 가운데 3바퀴를 돌았다는 뜻이다.

또 현재 순위를 보여주는 화면이 가장 빈번하게 뜬다. 흔히 1위부터 순서대로 드라이버 이름을 표시하고 옆에 앞 순위와의 시간 차를 표시한다.

다음 화면은 1위부터 8위까지의 순위를 표시하고 있는데 현재 1위는 메르세데스팀의 로스베르그로 2위 레드불의 페텔과 0.485초 차이로 앞서고 있다. 드라이버 이름은 약자로 표기하는 만큼 알아두면 순위를 파악하는데 편리하다. 예를 들어 페텔은 'PET', 웨버는 'WEB', 해밀턴은 'HAM'하는 식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순위·드라이버·기록 표시



화면 상단, 서킷 주행 바퀴수



## 금호타이어, F1 데뷔 언제쯤



### F3로 기술력 다져 시제품 개발... 국내기업 1순위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24대의 머신들이 접전을 펼치는 F1(포뮬러원)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겨루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 하나의 기업도 F1에 진출하지 못했다. 수십년간 축적해야 하는 기술력과 인적 인프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 금호타이어다. 금호타이어는 이미 2007년 F1 타이어 시제품 개발을 마쳤다. 또 F1 코리아 그랑프리 영암에서 열리면서 여건도 한층 좋아졌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점차 살아나고,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에서도 극한의 레이스를 받으며 기술축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가 세계 모터스포츠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 레이싱 타이어 개발을 시작한 1999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F1 전단계인 F3(포뮬러3) 왕중왕전에 첫 포뮬러 타이어 런칭에 성공했다.

이후 마스터즈 F3, F3 유로시리즈 등 세계 유명 F3 대회 공식타이어로 지정돼 전세계 모터스포츠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3대 모터스포츠의 하나인 르망24시 우승(P2클래스), 일본 최대 자동차 레이스인 슈퍼GT의 포카 1000km에서 우승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3 유로시리즈를 비롯해 마스터즈 F3, 호주 F3대회, 이탈리아 F3의 공식타이어 공급업체로 F3 타이어시장의 약 40% (공급 개수 기준)를 점유, 세계 F3시장 넘버원 브랜드를 구축했다.

또 국내에서는 프로대회인 CJ티빙닷컴 슈퍼레이스에서 6000클래스(배기량 6000cc), 3800클래스(배기량 3800cc) 등 최상위 클래스에 공식타이어로 활동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유명 F1 드라이버들과도 인연이 깊다. 루이스 해밀턴(맥라렌)과 젠슨 버튼(맥라렌), 니코 로스베르그(메르세데스GP) 등 정상급의 많은 선수들이 금호타이어로 질주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F1 대회는 수많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꿈의 무대"라며 "금호타이어는 단순 후원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으로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